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3. 6 / 7
vol.296



한벗재단
45주년 기념식

고맙고 귀한 분들을 모시고



www.hanbeot.org

“하나의 빛, 모두의 빛”



한 빛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인들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축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봉사·기부회원을 모신 45주년 기념식

감사의 경외의 자리

한껏 45년은 시민봉사자와 기부자들이 일구어낸 역사이다. 이들을 이끌어낸 분들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다. 지난 7월 1일, 한벗재단 45주년을 맞아 봉사자와 기부회원,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105명 참석

34℃의 무더위 속 토요일 오후, 무슨 행사에 나서기 꺼려지는 날씨였지만 그래도 105명이 모였다. 장애인 16명, 봉사회원 43명, 기부회원 31명, 직원 15명. 한 분 한 분 귀하고 감탄스러운 분들. 모질고 사나운 세상에 어찌 이런 분들이 계실까?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다!

고맙고 귀한 분

축사는 <40년 지속 기부회원>인 이계준 목사님(전 연세대학교목실장)이 해주셨다. 4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기부하시다. 이걸 세상일이 아니다.

이날 행사는 봉사, 기부회원을 치하하기 위함이었다. 지난날 회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60여 분에게 감사장을 바쳤다.

한벗, 앞으로 100년

한벗재단은 앞으로 복지마을 건설의 꿈을 지피고 있다. 이날 계획의 큰 그림을 보이는 순서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요 <겨울 나무>를 다 같이 부른 후 음식점에서 만찬.

한벗 재정의 큰 공로자 두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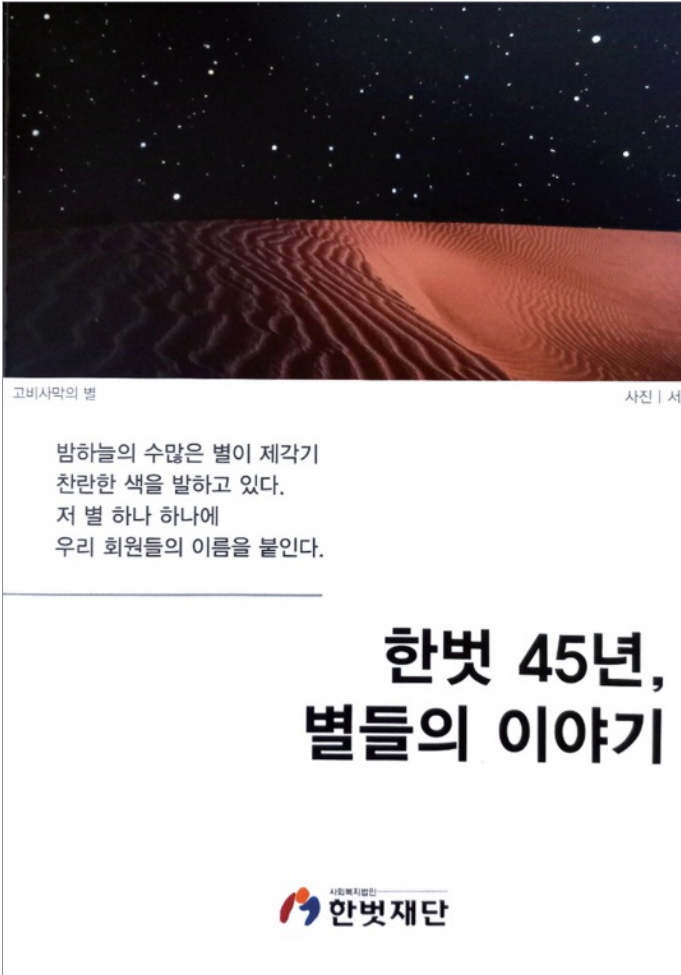


김윤한, 김애자 부부



서중석 교수

봉사회원 2,200명, 기부회원 9,700명



한벗 45년의 역사기록

한벗 45년, 별들의 이야기

이번 기념식을 위해 지난 45년의 역사기록, <별들의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산다는 건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한벗의 역사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1978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한 봉사자와 기부자, 12,000여 명의 이름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펼친 활동을 모았습니다.

봉사회원 2,200명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세상에 어쩌면 자기 시간을 남에게 거저 주는 것일까? 한벗에서 활동한 장애인이동봉사대원 1,800명을 비롯해 모두 2,200명의 봉사자가 참 기찬 이야기를 엮어냈습니다.

지속 기부연도	회원 수
10년 이상	546명
15년 이상	347명
20년 이상	215명
25년 이상	69명
30년 이상	28명
35년 이상	1명
40년 이상	1명
45년 이상	1명
합계	1,208명

활동10년 이상 지속 기부자 9,700명

10년, 한 단체에 10년 동안 끊임없이 돈을 보내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기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10년을 계속했다면 우리는 그 흔의 오롯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20년, 30년... 청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한 분이라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분들입니다. 한벗에는 이런 분이 12,000명이나 됩니다. 작은 봉사단체에 이처럼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장기 기부회원들에게 작은 감사패를 우송해드립니다. 기부내역(연, 월,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뇌위축증 자매, 15년 만에 나들이

한 가족의 불행

서대문구 홍제동에 희귀병 자매가 연로한 아버님과 산다. 자매의 병은 소뇌위축증이라는 진행성 희귀병. 작은 뇌가 점차 위축되어 근육이 약해지는 병으로 6년 전, 어머니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치료방법이 없는 난치질환이라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침대에서 24시간

올해 39살의 언니는 장애가 심해 5년 전부터 침대에 누워 지낸다. 아파트 화장실이 좁아 침대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3월, 한벗이 몸을 씻고 머리를 감을 수 있는 특수침대를 지원해주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언니 몸에 벌레가 기어다닐 정도였다.

기초수급 가정

36살의 동생은 한때 직장을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은

장애가 심해져 전동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로 다리와 손힘이 말랐다. 잡부 일하던 아버지는 너무 연로해 벌이를 하지 못한다. 정부 생계비에 의존하는 기초수급 가구. 언니가 때때로 구급차로 응급실을 가곤 해서 용돈이 남아나질 않는다.

석양이 비춘 가족

5월 말, 이 처량한 가족이 15년 만에 바깥나들이에 나섰다. 침대형휠체어나 구급 침대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한벗 버스 덕분이다. 자매와 아버지, 활동보조사 2명 등 5명이 인천 월미도에서 점심을 먹고 을왕리 해변에서 노을을 보았다. 석양도 오래도록 침대에 누운 딸과 아버지를 비추어주었다.



주간보호실 소식

3년 만의 나들이



코로나 탈출

그리고 보니 3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의 길고 지긋 지긋한 터널을 이제야 비로소 빠져 나왔다. 이용장애인은 물론 직원과 봉사자 모두 흥분, 점심과 기저귀, 이동차량을 준비하며 기대에 찼다. 입사 후 처음 나들이를 준비하는 은택 복지사는 긴장감으로 조여들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장애 정도를 감안해 두 팀으로 나누어 가기로 했다. 한 팀은 용산 아이파크몰의 영화관, 영화만 보는 게

새 조리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조리사 급여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갖춘. 입맛도 궁금해집니다.

아니라 아이파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먹고 싶은 음식이나 영화 프로도 직접 고르게 했다. 역시 화끈한 액션 영화를 찍었다.

또 한 팀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팝 아트 전시장. 파격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감상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은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다.

이제 매주 나들이할 생각만으로도 주간보호실에 생기가 돈다. 그렇지, 세상은 바깥에 있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볼까?

봉사해주신 숙명여대 학생들, 고맙습니다.

박수빈, 구주연, 박시연, 허현정, 윤나은

선물 고맙습니다.

- 전소민 이용자 보호자 새우젓 1통
- 푸드뱅크: 빵 60개, 화장품 1박스

봄맞이 나들이



지난 5월 말, 어르신 60여 명을 모시고 파주 벽초지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수목원의 우거진 숲속에서 갖가지 봄꽃 구경을 하고 다육이심기 체험, 카페에서 휴식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단지 이웃끼리 서로 많이 알고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주십경-제주랑 놀아보젠?”



6월 초에는 제주도에서 모셔온 <THE 풍낭>의 마당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강당을 가득 메운 주민 60여 명은 연주자와 같이 노래 부르며 흥겨운 한때를 즐겼습니다.

지속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한빛등지 소식

“바다에 가고 싶다”



영호 씨의 바다

코로나 해방의 날을 기다려온 영호 씨가 드디어 바닷가로 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도 차를 몰고 자주 바다로 가곤했답니다. 지난 5월, 무의도 해변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바다 냄새를 맡고, 갈매기를 보며 참 평화로운 휴식을 가졌습니다. 얼마 만에 온 바다인가! 바다는 영호 씨 영혼의 품입니다.

성미산의 김밥

명규 군과 주용 씨가 졸라 등지 식구들이 근처 성미산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장애가 있어 정상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드디어 정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풍엔 역시 김밥이 있어야 제맛. 채순옥 선생님이 정성껏 마련한 맛있는 김밥과 유부초밥을 먹으며 봄 내음 실컷 마셨지요. 이제 코로나 해방이다!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먹었습니다.(4월17일~6월16일)

개인

김경숙(실습생) 박카스, 김민혁 아버지(이용자) 선글라스, 피자. 김영호 동생(이용자) 과일. 김현숙(실습생) 라면, 아이스크림. 노영진(실습생) 쇼핑백. 문용호(실습생) 푸딩. 부부커피(후원자) 빵. 부흥세탁소(후원자) 식재료, 아이스크림. 서민행(실습생) 김치. 송서아(후원자) 간식. 오상윤 어머니(이용자) 수박, 케이크, 원석별 아버지(이용자) 간식, 홍삼. 유대호(실습생) 간식. 윤정애(실습생) 생활용품, 식재료. 이지현(실습생) 아이스크림. 익명(후원자) 계란. 임혜지(실습생) 간식. 장은정(실습생) 조리도구. 장춘희(실습생) 두유. 정재덕 형(이용자) 과일. 진 권 부모님(이용자) 고기, 계란

단체

당가원 짜장면, 볶음밥. 롯데카드 식재료. 리치몬드제과점 빵. 서강어린이집 초콜릿, 카스테라. 푸드뱅크 과자, 김치, 빵, 삼계탕, 식재료

“선물 가지고 미얀마 가요”

세 분의 고마운 회원이 마련한 선물, 그네와 트램블링(방방이)을 미얀마 보육원에 전달하기 위해 8월 초 떠납니다. 함께 가실 분 연락 주세요. 항공료가 크게 올라 4박 5일, 1인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선물 주신 분



스텔라(미국 달라스 교민)



이명자, 최재화(각 1개)

보육원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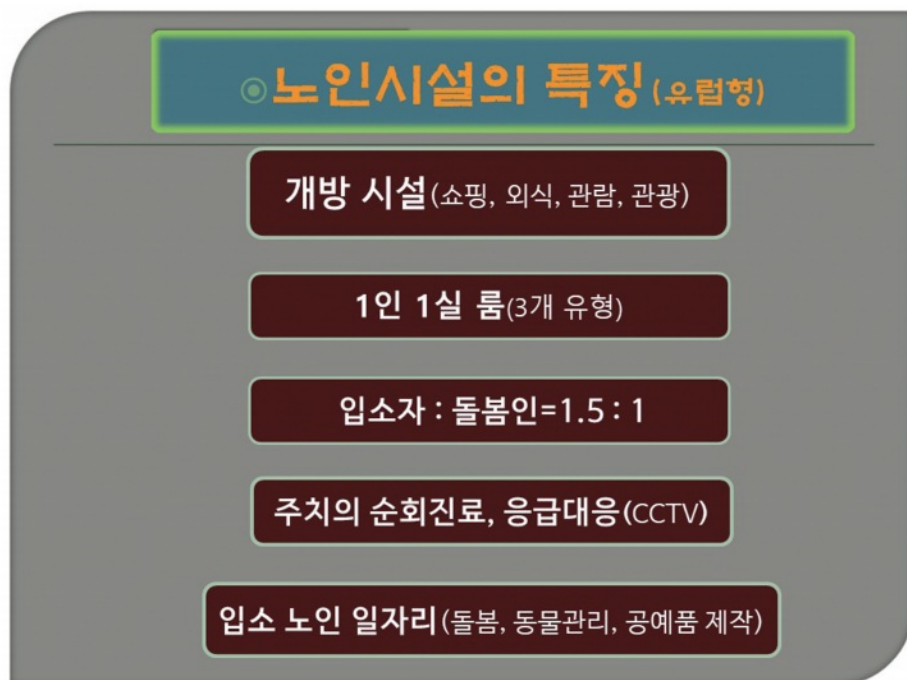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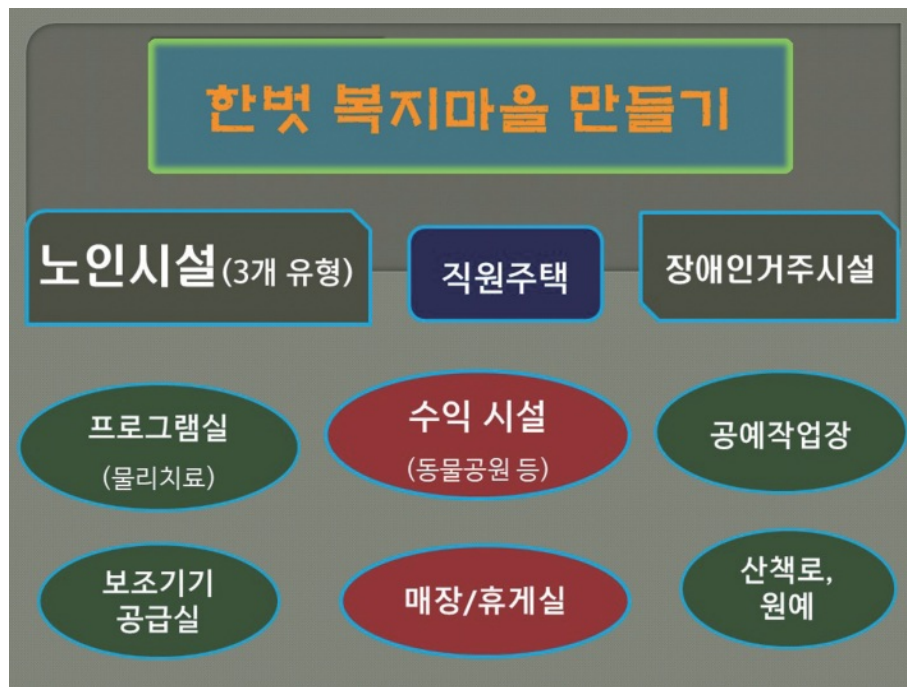


코로나19 만연으로 출국하지 못했던 민성숙 선생이 사원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떠납니다. 민 선생은 보름 동안 머물며 단원 선발과 발성을 지도합니다.

합창단을 육성할 달라의 사원학교는 양곤의 빈민지역으로, 월 1만원의 학비가 없어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한뼘, 앞으로 100년

45주년 기념식은 한뼘재단이 앞으로 펼칠 복지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재개발로 효창동에서 나오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공동체 마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회원 여러분의 조언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아래는 기념식 때 설명한 요약본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따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와상장애인이거나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분, 추천해주세요. 서울시 지원으로 1박2일 숙박여행을 제공해드립니다. 당사자와 가족, 보조인 4~5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실을 수 있는 특수차량으로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여행지 : 동해안, 서해안, 지리산 노고단. 여행비는 서울시와 한빛이 지원합니다.

특별 성금 고맙습니다

김경미 20만원(4,5월). 이성순 10만원(미안마합창단). 이명자 43만원(미안마보육원 놀이기구)
이용현 5만원(직원). 최재화 50만원(미안마보육원 놀이기구). 홍규진/옥보경 3만원. 익명 10만원

새 기부회원으로 등록해주신 분, 큰 힘이 됩니다

김삼복. 김진현, 이주원, 이도원(전 직원 가족). 오윤서. 이용현(직원). 이주희(전직원)



자두가 이렇게 맛있다니!

전 이동봉사회원인 김봉갑 선생이 김천에서 농사 지은 자두를 보내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김봉갑 010-9004-6551



무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일 생기기를!

23년 4월 ~ 5월 입금내역. ()안은 개별 수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

달러(\$980)	킬린(\$380)	
5월	5월	고침
김윤원 \$200	고향미 \$20	이엘리자벳 \$20
장덕환 \$200	김글라라 \$20	이사벨라 \$20
스텔라 \$150	김은희 \$20	이영란 \$20
문혜숙 \$300	김데레사 \$20	이정숙 \$20
아리 \$30	김헬렌 \$20	장지수 \$20
이안 \$30	김혜중 \$20	조용순 \$20
루빈 \$30	미영로사 \$20	최정임 \$30
노아 \$20	백수산나 \$30	허양욱 \$20
제롬 \$20	유베로니카 \$20	
합 \$980	45주년 축하금 최정임 \$20 합 \$380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성곤(2)
 오용석(2) 오윤서(1)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1)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상직(2) 이승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화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 1) 이종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옥자(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1)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최순희(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2)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2) 한성진(2) 한혜숙(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이상 10,000원

김병석(2) 현영돈(2)

이상 15,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강희정(2) 김민주(울산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1) 김용신(2) 김윤대(1)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백지웅(2) 변상순(2) 서성민(2) 신광재(2)
 신금옥(2) 심경애(2) 안성환(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숙재(1) 이용현(3)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1) 임정순(2) 조윤식(2) 현승혜(1)

<한벗재단>

문숙자(2) 1,000원
 김계순(덕암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근(2) 구재순(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1)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1)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애(2) 신인아(2)
 신혜경(1)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수관(1) 정길순/박지영(2) 정혜숙(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부산2) 김자경(3)
 김재환(2) 김중용/전정원(1)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진현/이주원/이도원(1)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효진(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중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준숙/김신근(2) 서동범(2) 서동원(3)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정석(1)
 송유자(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계영(1) 김은경(2) 김홍현(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2) 박용길(2)
 신화웅(2) 오청근(2) 윤경자(무약2) 이관희(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1)
 정병배(2) 홍성관(2) 황영배(1)

이상 30,000원

이상 35,000원

이상 40,000원

박종성(2)
 서판임(2)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3)
 김지웅(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알티엑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이종우(2) 최해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박지연(2) 어재형/신지영(2)
 오선환(4)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2)

이상 100,000원

채진석(2) **이상 15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2) **이상 900,000원**

특별후원금
 이명자 430,000원(미안마보육원 지원)
 이성순 100,000원 이용현 50,000원

<휠체어날개달기>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1) 신승엽(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지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술(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혜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영숙(2) 김일생(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송경자(2)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1) 장혜연(2) 전승원(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이상 50,000원**

박형상(2) 김삼복(2) **이상 100,000원**
 최명숙(2) **이상 120,000원**

특별후원금
 김경미 200,000원 /
 김홍규, 김진옥, 김보경 90,000원

<한뼘동지>

권희덕(1) **이상 2,000원**
 박경희(1) 이순덕(1) **이상 2,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효순(2)
 김가홍(2) 김계자(2) 김남제(1)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길현(1) 류민경(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3)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이현주(2) 이해란(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조상은(2)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순기(2) 강유승(2) 강인수(2) 강홍선(2)
 강현(2) 고유미(2) 곽봉현(2) 곽영현/장형기(2)
 구성모(2) 구혜림(2) 권오준(2) 권지연(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상한(2) 김석경(2) 김선옥(2) 김선희(2)
 김성길(2) 김세연(2) 김수진(1) 김연주(2)
 김영승(2) 김영진(2) 김예찬(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인곤(2) 김인순(2)
 김인숙(2) 김정석(2) 김종국(2) 김태연(1)
 김하나(2) 김혜정(2) 김호영(2) 남성현(2)
 남진숙(2)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박리라(2) 박성준(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1) 박지원(2)
 박해진(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1)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숙(2)
 송재하(2) 안국희(1)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향자(2) 양현태(2) 여일규(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원현선(2) 유민화(2) 유윤미(2) 윤숙현(1)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진(3) 이경진(2)

이상수A(2) 이상수B(2) 이성림(1) 이소정(2)
 이승순(2) 이승연(2) 이승재(2) 이영순(2)
 이예민(2) 이예준(2) 이옥순(2) 이용식(2)
 이은숙(2) 이재호(2) 이종욱(2) 이지영(2)
 이지현(1) 이태환(2) 이해원(1)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해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영숙(2) 장철만(2) 장현주(1)
 전에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명자(1)
 정영석(2) 정원교(2) 정은이(2) 정재영(2)
 정진하(2) 정향남(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천병수(2)
 최경희(2) 최미정(2) 최선영(2) 최순우(3)
 최은미(서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현제준(1) 홍은정(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여은(2) 김희량(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옥(2) 원서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희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조기택(2) 정현주(2)
 진권(2) 채순옥(2) 하복덕(2) 한재형(2)
 한초덕(2) 한혜림(2) 함종수/한정옥(2)
 황민규(2) **이상 20,000원**

류호승(1) **이상 24,000원**
 박경희(1) 이순덕(1) **이상 25,000원**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1) 김범준(2)
 김연숙(2) 김영호(전파사, 1) 김윤영(2)
 박희수(2) 서민행(2) 석낙일(2) 오범균(2)
 윤일심(2) 이웅기(1) 임재창(2) 정숙웅(2)
 정은영(2) 조길용(2) 조병훈(2) 조은주(2)
 채한석(2) 최갑석(2) 홍규, 진옥, 보경(1)

황정현(2) **이상 30,000원**
 백승열(2) **이상 40,000원**
 광형우(2) 권영수(2) 김간관(4) 김종호(2)
 김한서(2) 윤미선(2) 이태균(2) 조성윤(2)
 조항미(2) 최갑석(1) 홍영미(2)
이상 50,000원
 정영진(1) **이상 70,000원**
 김장욱(2) 박상봉(2) 손영숙(1) 유정재(2)
 열림교회(1) 주지연(2) **이상 100,000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1) 하대주(2)
이상 200,000원
 정의승(1) **이상 500,000원**
 서강어린이집(1) **이상 867,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최원우(1)
 흥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1)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1)
이상 100,000원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1) 윤준호(2) 이경주(1)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2)
이상 10,000원
 김민정(2) **15,000원**
 정훈(2) 김중범(2)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2) **이상 100,000원**

통권 제 296호
 발행일: 2023년 7월 10일
 발행인: 최명숙 제작: 한벗재단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 (02)393-0661(대)
 MOBILE: 010-6747-0661
 FAX: (02)712-6093
 이메일: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 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 백진영(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벗동지: 02)336-3100
 주간보호: 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 02)713-1005
 한벗투어: 02)702-1515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23년 4 ~ 5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 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 부 금	정기(재단)	13,326,000	인건비	급여/사회보험	14,571,993
	특별후원금	6,918,182	시설지원	동지/주간/지속	4,350,000
	미국교민후원	2,626,588	운영비	공공요금 등	6,435,340
	동지/주간	6,720,000	업무비	접대비 등	100,000
	날개달기기금	4,410,000	간행비	소식지 배포	945,520
	방정환기금	1,976,000	공과금	보험료 등	166,800
	마안마합창단기금	100,000		휠체어날개달기	3,480,000
임대수입	원룸관리비 등	2,095,692		방정환기금	3,223,649
보증수입	서울시보조사업	2,164,848	사업비	게스트룸	54,110
사업수입	휠체어보증금	320,000		장애인피부미용	221,460
차입금	차입금	3,000,000		와상장애인사업	1,306,000
기타	잡수입	952,122		차량 개조	3,350,000
			상환금	원금/이자	6,500,000
총계	44,609,432		합계	44,704,872	
			잔액	-95,440	



40년(최장기) 기부회원 이계준 목사



연세대학교목실장 역임. 연세대학 명예교수

양동에서 구걸맹인을 위한 밥집과 맹인자녀유치원을 운영할 때부터(1982년) 기부. 1996년, 한벗이 설립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대표를 10년 동안 맡아 키워주심.

45주년 축하금 기부해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강만희(감사) 10만원

권진동(전 소록도하모니카합주단장) 30만원

김윤원 / 김애재(재단이사 / 미국 교민) 250만원

김윤제(힐로피아 대표) 30만원

김혜명(재단이사) 100만원

김혜숙(고 남정도 고문 부인) 300만원

백진양 / 박봉희(창립회원 / 운영위원장) 50만원

서중석(창립회원 / 연세대명예교수) 100만원

어우러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모두 10만원

오문영(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0만원

이관희(전 이동봉사대 부이사장) 10만원

이광범(어우러기 대표) 10만원

이금주 / 최영하(장애인 모녀) 20만원

이미화(축가 연주자) 30만원

이용현(본부 직원) 10만원

이택규(전 이동봉사대 이사장) 20만원

정재연(배재 80회) 10만원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50만원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실 30만원

채진석(재단 이사) 30만원

최경임(한국미용학회 교수) 10만원

최정임(미국 킬린교민) 3만원

최준수(창립회원 / 초대 회장) 60만원

한민정(부산 활동가) 10만원

한벗동지 50만원

홍억수(전 맹인협심회장) 10만원

휠체어날개달기 100만원

계 1,253만

사 람 세 상

가난한 장애인의 ‘기부’



오상만(20년 지속기부)



홍혜경(15년 지속기부)

가난과 기부

한번에 기부한 적이 있는 분은 9,700명이다. 이 중에 장애인도 있는가? 그렇다. 대략 350명 정도이다. 없으면 기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없어도 고마움을 표하거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연민을 막지는 못하는 법.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기부를 더 잘한다는 게 세계의 통계이다. 가난이 남의 어려움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기부

하루하루가 겨운 중증장애인,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희귀병 장애인이 기부를 계속하진 못한다. 실제로 장애인의 대부분은 단기간이다. 그래도 10년 이상 기부자가 20명이나 된다. 10년 지속 5명, 15년 지속 7명, 20년 지속 6명, 그리고 30년을 지속이 2명이나 된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거부해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 밝히지 않는다. 또 한빛회관 건립 때는 총 기부자 285명 중 44명이 장애인이었다.

휠체어의 환생

1987년 <부름의 전화>를 할 때였다. 어느 장애인의 부름에 집에 가보니 언덕바지에 계단이 있는 집이었다. 20대 중반의 그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휠체어가 없었다. 회원들이 돈을 모아 휠체어를 선물했다. 이후 그는 한빛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즐거워했다.

25년 후인 지난 2013년, 빈곤국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내기를 할 때였다. 한 달 기초수급비 40만원으로 사는 그가 휠체어를 사주라며 거금 100만원을 내놓았다. 휠체어의 감격적인 환생이었다.

<한빛 후원계좌 안내> • 한빛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빛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빛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